

1112(토) 사도행전 24-28장 믿음의 항해, 구원의 항해

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한 후 로마로 향했습니다(25:11).

오직 <복음전파>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(25:25,26:31-32)

그러나 로마행은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(23:11).

당시 유대와 로마의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.

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들의 자질부족, 부패로 인하여

유대인들의 여론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.

유대를 어떻게 손봐야하나 고민 중인 황제에게(24-25장)

유대의 부당함을 알리는 <로마시민>은 좋은 빌미입니다.

바울은 어느새 민족을 고발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(28:19).

로마로의 항해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(27-28장).

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급해야 했던 로마제국은

난항기일 경우 선장/선주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했습니다.

선장은 위험을 알고도 이익 때문에 항해를 강행했으나,

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.

(27:9-11,18-20,30,38)

난파된 배에서 겨우 구조된 섬에서도(28:1-4)

바울은 독사에 물리고 살인자라는 정죄를 받습니다.

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여 쉼 없이 복음을 전했으나,

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성과도 없었습니다(28:24-25).

바울은 선지자 이사야를 떠올렸습니다(28:26-27).

“주여, 어느 때까지니이까? (사6:11)”

그럼에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(27:23-25,34),

하나님은 위기를 복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(28:6-10).

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믿음(구원)의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.

그 무엇도 바울과 <복음>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(28:23,31).

나는 믿음의 항해, 구원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?

- ❶ 내 삶은 무엇을 위해 항해하고 있습니까?
- ❷ 나를 멈추게 만드는 <크고 작은 파도들>은 무엇입니까?
- ❸ 믿음의 항해를 위해 버려야 할 짐/기구들은 무엇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사도행전 24-28장